

초점 러시아월드컵 D-10... 신태용호에게 주어진 숙제는?



한국 축구대표팀 신태용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들이 2018 러시아월드컵을 앞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사전 캠페인인 오스트리아 출국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흡한 전술의 퍼즐 하나씩 맞춰야

오스트리아서 전지훈련
볼리비아·세네갈과 평가전
신 감독, U-20 시절 재미 본
변형 스리백 들고 나왔으나
선수들 적응하는데 어려움 겪어
아직은 발전할 여지 충분해

나는 반드시 보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다.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이 축구인이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다시 한 번 뇌리를 스쳤다. "월드컵은 세계 최고의 무대다. 월드컵에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는 선수는 없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부분은 선수들이 알아서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월드컵에 어울리는 감독은 치밀한 전략가다. 철저한 계획과 확실한 전술이 필요하다." 정확히 열흘 뒤면 2018 러시아월드컵(6월14일)이 막을 올린다. 9회 연속 본선행에 성공한 한국은 스웨덴, 멕시코, 독일 등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 F조에서 경쟁한다. 선수단은 러시아 입성을 앞두고 오스트리아에 집을 풀었다. 러시아와 시차, 기후가 비슷한 오스트리아에서 적응을 마친

뒤 결전지로 향한다는 계획이다. 12시간 비행도 모자라 버스로 5시간을 달려 3일 밤 숙소에 들어온 선수들은 4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나선다. 선수단은 12일 러시아 베이스캠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갈 예정이다. 오스트리아에서 온전히 보장 받은 시간은 8일 뿐이다. 한국의 전력은 아직 불안정하다. 출정식을 겸한 지난 1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평가전에서는 1-3으로 완패했다. 신 감독은 U-20 대표팀 감독 시절 재미를 본 변형 스리백을 들고 나왔지만 선수들은 제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선수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 보스니아전에 앞서 이틀 밖에 스리백 훈련을 하지 못했다.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아직 발전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다. 4백대 마 찬가 지다.

신 감독은 출국에 앞서 "오스트리아 도착 후 조지력을 다지고 스웨덴, 멕시코, 독일전을 대비해 하나하나 채우면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실전에 앞서 잡힌 두 차례 평가전은 전술 완성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은 볼리비아(7일), 세네갈(11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격돌한다. 특히 세네갈전은 비공개로 진행돼 전력 노출 우려 없이 확정된 베스트 11을 내세워 맘 놓고 실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의 성격은 분명하다. 정신적으로 잘 무장된 23명을 데리고 아직은 미흡한 전술의 퍼즐을 하나씩 맞추는 것이 신 감독에게 주어진 과제다. 한국 축구계와 신 감독에게 2018년 여름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해답은 오스트리아에서 찾을 수 있다. /뉴시스

대한체육회, 100주년 맞아 22일까지 슬로건 공모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100주년(2020년)을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00주년 기념 슬로건'을 공모한다. 스포츠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22일까지 접수한다. '대한체육회 100주년을 표방할 수 있는 슬로건 20자 이내'의 문구를 공모한다. 당선작 1점, 우수작 2점 등 3점을 선정해 시상한다. 당선작 200만원, 우수작 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사업 목적에 어울리고 대한체육회 브랜드에 기여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문구를 선정한다. 대한체육회 10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뉴시스



김소희, 태권도 월드컵 프리 정상 차지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소희(한국가스공사)가 로마 월드컵프리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김소희는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포로 이탈리아 경기장에서 열린 2018 세계태권도연맹(WT) 월드컵프리대회 1차 대회 마지막 날 여자 48kg급 결승에서 탈리스카 레이스(브라질)를 23-13으로 제압하고 한국에 2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이번 우승으로 김소희는 지난해 9월 모로코 리바트에서 개최된 2017 시리즈 2차 대회 이후 9개월만에 월드컵프리에서 타이틀을 따냈다. 첫날 남자 68kg급 경기에서 이대훈(대전시체육회)이 알렉세이 데니센코(러시아)를 10-8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켈리야 아그리스(터키)를 준결승전에서 꺾은 김소희는 2라운드까지 레이스에 5-7로 뒤졌다. 그러나 김소희는 3라운드 들어 오른발 몸통 공격을 연속적으로 성공시키며 전세를 뒤집은 뒤 점수 차이를 벌였다. 한국은 사흘간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뉴시스

'평창 성공 견인' 김기홍·백성일·김상표·최명규·최문순, IOC 은장 훈장

동계올림픽 조직위, 디브리핑 개최식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강원도의 공로자 5명이 올림픽 은장을 수훈한다. 2018평창올림픽및평창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4일 베이징조직위원회 주사무소에서 개최되는 평창2018 디브리핑 개최식에서 김기홍 사무처장과 백성일 전문위원이 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으로부터 올림픽 은장 훈장을 수여받는다"고 밝혔다. 올림픽 훈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 평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적극 기

여한 조직위 주요 인사의 공적을 평가해 수여한다. 김기홍 사무처장과 백성일 전문위원은 바흐 위원장 친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김상표 전 시설 부위원장, 최명규 사업사무처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3명은 추후 IOC 위원회의 전수로 훈장을 전달 받는다. IOC는 지난 2월 IOC총회 폐회식에서 이회법 조직위원장에 금장훈장, 여형구 사



김기홍 사무처장

무총장 등 3명에게 은장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한편, 조직위는 4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평창 디브리핑을 위해 60여 명의 직원을 파견해 평창올림픽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